



# 작년 말→이달 중순→설 전... “주택공급 대책, 신뢰가 관건”

## 부동산 공급대책 차일피일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30%↓  
9·7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더 상승  
국토장관 “어느정도 계획은 나와  
늦어도 1월 말 발표 하려고 노력”

올해 들어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  
화됐지만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  
지 내놓겠다고 공급 방안(주택공급 확  
대 대책)은 이달 중순으로 예고됐지만  
다음달 설 연휴 전으로 다시 연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여유있게 잡으면  
명절(2월 중순) 전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지만 발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  
부 정책의 신뢰도가 상실하는 만큼 늦어  
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가 컸던 공급 절벽은 올해부터  
현실화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7만2270세  
대로 집계돼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  
감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절

반 수준에 불과한 1만6412세대가 입주  
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토  
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규  
제까지 겹치면서 매물은 잠긴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  
주도인데다 시장이 기대했던 도시정비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으면  
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  
가 오히려 가팔라졌다. 공급대책 이후  
에도 실제 착공·입주까지 수 년이 소요  
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작년 11월 ‘국토부·LH 합  
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 현장에서 “수  
도권 전체를 놓고 어디에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  
힌 바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 때 추진하  
다가 안된 지역, 노후 정부청사,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  
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장관의 발언이 몇 주 만에 힘이  
빠진 것은 대통령이 “서울과 수도권 집  
값 때문에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  
는데, 살펴보니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직접 언급하면서다. 연말 국토부의 대  
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주택 공급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 역시 지난달 중순께 국회 국  
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  
문에 (발표를) 다소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미래 위해 인적·물적 협력 확대하자 조세이탄광 한인희생자 공동조사도”

李 대통령-日 다카이치 정상회담  
“유해 신원확인 DNA감정 등 추진  
과거사 문제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  
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만나 90여분간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  
I) 등 미래 협력과 과거사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1942년 조세이(長  
生)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  
이 수몰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유  
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조사에 나서  
기로 합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  
본 나라(奈良)현에서 만나 소인수회담  
20분, 확대회담 70분, 합해 90여 분간 회  
담을 진행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나  
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한일 정상은 AI 등 미래 협력을 포함해  
마약·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지식재  
산의 보호, 고령화·지방소멸 등 공통 사  
회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 여러 분  
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특히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인 조세이  
탄광 수몰자 발굴 문제도 진척이 있었  
다. 양국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  
A 조사에 합의한 것. 이재명 정부가 한  
일 과거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모두발언  
에서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  
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  
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진  
전을 이뤄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  
각한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  
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일 확대 정상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종  
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  
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  
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나아  
가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  
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환영하며 “이 대통령과 함께 일  
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할 역할을 다해야 한다  
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

“지역 안정을 위한 공조”라는 발언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으로 중  
국과 갈등을 빚는 일본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  
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  
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진심  
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  
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  
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 SK하이닉스, 청주에 패키징 공장 짓는다

19조 투입, AI 메모리 수요 대응  
7월 ‘P&T7’ 착공, 내년 말 완공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첨단 패키  
징 팹(공장)을 신설해 최근 급증한 인공지  
능(AI) 메모리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SK하이닉스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7만평 부지에 총 19조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팹 ‘P&T7’을 짓는  
다고 13일 밝혔다.

P&T(Package & Test)는 전공정 팹에  
서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제품 형태로 완성  
하고 품질을 최종 검증하는 시설이다.

P&T7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담당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착공 후 내년 말 완공을 목표  
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의 연  
평균 성장률(2025~2030년)이 33%로  
전망되는 만큼 HBM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며 “AI 메모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



SK하이닉스 신규 팹(Fab) P&T7 조감도.  
/SK하이닉스

하기 위해 신규 투자 결정을 했다”고 설  
명했다.

회사는 현재 추진 중인 청주 M15X와  
P&T7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AI 메모리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투자는 정부의 지역 균형 성  
장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공급망  
효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  
인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장기 투자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  
도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제도적 환경 개선으로 투자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의 복합  
적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사업 경쟁력  
과 운영 효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자  
를 결정해 왔다. 이러한 원칙 아래 지난  
2018년 청주 M15를 준공했으며, 2024  
년에는 AI 인프라의 핵심인 HBM 등 차  
세대 D램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총 20  
조원 규모의 신규 팹 M15X 구축 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  
존 계획보다 앞당겨진 지난해 10월 클린  
룸을 오픈하고 현재는 장비를 순차적으  
로 셋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청주 P&T7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효율이나 유불리  
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기반  
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메트로 한줄뉴스



▲김정은, 경호 책임자 3명 교체...통일부 “비교  
적 짧은 시간 물갈이”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재심·의총에서 거취  
최종 결정 /사진 뉴시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준석 회동까지...국민  
의힘 입지 개선될까  
▲與원내지도부, 정책수석에 김한규...소통수석  
에는 전용기

▲與 “쿠팡 국조 요구서 15일 본회의 보고... 못된  
기업 행태 잡아야”  
▲북한 ‘후계자 자리’ 제1비서 5년째 공석... 경호  
라인은 물갈이